

신문광고로 본 근대생활사

- 과자 '포켓에 너눌 수 있는 호화로운 식탁'
- 콘돔 '가정 화합의 벗'
- 누드집 '밤의 쾌락을 맞불라는 남자에게 권합니다.'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 김태수 지음 황소자리 펴냄 | 1만 7천원

'언제나 당신 뒤에 서 있겠습니다. ○○홍쇼핑! '아빠 힘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시쳇말로 요즘 '뜨는' 광고 카피다. 흔히 광고에 '산업사회의 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의 기점을 근대라 한다면 그 시절 광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역사책이 될 수 있다.

수백개의 신문 광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해 낸 <꽃가치 피어 매혹케 하라>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때 신문들은 '카라멜도 싸우고 있다'는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후방을 강화하기 위해 영양이 풍부한 과자를 섭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제의 병력 확보를 위한 출산 장려정책을 광고에 이용하기도 한다. '부인네 일생의 정말 행복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라는 글은 아들 낳는 효험이 있는 '부인병 약'의 광고 카피다. 당시나 지금이나 한 줄의 광고카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명쾌하게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다.

50여년전 광고라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 요즘은 것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명구'가 많다. 과자를 '포켓에 너눌 수 있는 호화로운 식탁'으로, 삭구(콘돔)를 '가정 화합의 벗'으로 묘사한 것을 듣는 순간 기발함에 무릎이 탁 쳐진다.

여기저기 박혀 있는 빛바랜 흑백사진과 무려 4백페이지에 육박하는 많은 양에 놀려 고무한 역사책으로 자칫 치부돼 버릴 수 있지만 책을 조금만 들춰 읽다보면 금방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런 대목들 때문이다.

요즘 즐겨 먹는 커피를 그때 당시는 맛이 쓸쓰름한 데다 색깔도 검어 '양탕국'으로 불렸다. 먹고 사는 것이 절실했던 시대, 포도주조차도 한가로운 기호품으로 그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갑술 철 등 귀중한 영양계를 가지고 있어 식육부진 허약 등 인(인)에게는 참으로 절호한 음료'로 선전



고구신 광고

되었다. 세발제(洗髮劑) 광고는 '일주 일차(一週一次) 머리 감기를 잊지 마시고...'라고 강조한다. 구두 광고는 '부럽도 다 시원한 청풍 부는 곳에 산뜻한 양화(洋靴) 신고 활발히 걸어가게 저 청년의 보츠'를 예찬하고 있다.

영화 광고와 라디오 수신기 광고도 눈에 띈다. '예술 지상주의의 작가 채플린 씨가 실로 수년간 고심 결정해 짜낸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청각신경을 만족시키는 진육성(眞肉聲)을 발휘하는 라디오 수신기를 벗삼아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연예인 누드 열풍이 한창인 오늘날 신문에도 보기 어려운 미인 사진 책 광고도 일제 강점기 신문에 실렸었다. '절세의 미인이 몸에 일사(一紗도) 부착치 아니한 나체 사진이다. 밤의 쾌락을 맞불라는 남자에게 권합니다'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과감한 광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날아온 마라톤 선수의 승전보는 '건강한 조선을 목표로 하고 같이 위장을 건전케 하기 위하여 누구나 위장장제 활명수를 복용합시다'라는 활명수 광고로 활용됐다.

한편 '적군의 응징은 폭탄으로 하지만은 실사 복통의 폭격은 해무푸로 하자'는 반(半)격분성 약 광고를 마지막으로 근대 신문에도 한글 광고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렇듯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이 보증하는 지은이의 재치와 감각은 신문광고 속에 숨어 있는 시대적 의미와 징후들을 날카롭게 포착해 이를 맛깔스러운 글로 옮겨 놓았다.

깔끔하게 보정, 정리되어 수록된 수백 개의 영인본과 사진들은 본문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근대 신문광고의 원문을 직접 읽어보는 출출한 재미도 느낄 수 있게 한다. 길고 지루한 원문적, 연대기적 설명 대신 당시의 신문광고를 통해 이해하는 역사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질병과 싸우는 약품은 대동아공영을 위해 싸우는 황군에 비유됐다. 사진은 실사 복통의 '해무푸' 광고

전문가 서평



자연은 맑은 식사
에릭마르쿠스 지음 | 박종식 옮김
달팽이 펴냄 | 9천5백원

육식과 인스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채식은 곧 건강이다'란 얘기만 나오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거 불편해서 어디 하겠어? 내 미식생활의 기쁨이 절반 이상 줄어들 텐데, 고기 말고 먹을 게 뭐 있나!"

이런 대화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로 알려진 에릭 마르쿠스의 <자연은 맑은 식사>를 권한다. 먼저 지은이는 육식중심의 식사가 초래하는 건강의 문제를 예로 들어 채식주의의 장점을 이야기한다.

채식주의자들은 기존의 교리나 신념에 의해 자신의 밥상을 차렸던 사람들과는 다르다.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채식주의로 기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적정 체중에서 23킬로그램이 더 나가는 루스 패이네는 하와이에서 휴가 도중 테리 신타니 박사의 강연을 듣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육도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살이 찰 겁니다."(P80)

다이어트에 고심한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를 넘어선 감동을

야채와 고기 8:2로 먹어라

받을 것이다. 비만은 온갖 성인병의 온상이자 건강의 최대 적이다. 체다 치즈 0.64킬로그램에는 복숭아 7.53킬로그램과 똑같이 2천 5백 칼로리가 들어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분명해진다.

<자연은 맑은 식사>는 건강에서부터 동물윤리, 지구 환경과 기아 문제까지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유제품의 실제와 광우병, 보스톤 부부의 안전농장과 돼지와 닭, 소의 식육 문제와 도살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양심에 기준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래 고기가 되기 위해 태어나 길러지는 가축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육식을 포기해야 한다고? 방향 뒤편고 합의를 이유가 없다.

이 책의 위력은 대단하다. 당장 오늘의 밥상을 반성하게 하고 먹는 행위를 통해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더 나아가 채식주의의 현대 문명을 비판하게 만든다. 결국 어떻게 먹느냐는 어떻게 사느냐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필적이 없다는 데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거,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 경각심이 금방 사그라든다는 것. 사실상 채식주의는 100% 채식주의를 하는 완전채식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 끼에 육류와 야채의 비율이 80대 20이어도 된다.

채식을 지구 환경의 문제와 생명 전체에 대한 존중, 인류에 대한 책임과 연결시키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인간은 가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많이 먹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인정하고 인간이 먹이사슬에서 아래로, 즉 곡식과 채소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김정현(심재대 식품영양학과 강사)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느낌에서 직접 만드신... **산寺 조청**

- 산寺 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寺 조청은 산천 조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寺 조청은 한의사 이기용 원장과 약초연구자 김지문 이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산寺 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정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 오르지 않는 **산寺 참죽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寺 청미래 조청 1.2kg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산寺 기침량 조청 1.2kg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산寺 약도라지 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372-5721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寺 조청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공사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페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모공사)

서울: 011-379-0667
강원도: 010-3044-9708
경기도: 019-690-4018
충청도: 011-327-7697
경상도: 016-9294-8580
전라도: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헌서적사상업역사 / 지기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출간>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뎠하게 바로보셨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 수행 문답집이다.
깨달기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질답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후의 무명과 우주성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남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32-0122 www.zenparadise.com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운융창, 국민회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신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옮겨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몸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등 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제 제 371호 소헌성취기도도량 쌀바위에서는 원적의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공망이제,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친견했을때 자연적으로 3과로 증파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지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헌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항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